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7월 31일(금)  
...(음력 6월 11일)...  
Пятница  
31 июля 2020г.  
№ 30 (11689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0년전, 1990년 7월 28-29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1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초로 사할린에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대성황리에 진행된 공연은 한국 MBC방송사, 사할린 <레닌의 길로>신문사(현 새고려신문사)가 공동 주최했다. (관련 기사 2-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의 사진첩에서)

## 주지사, 오하 구역 방문

주초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출장차 오하 구역을 방문했다. 방문 일정에는 '사할린 모르베헤가스'회사 사업과 관련 문제점에 대한 논의, 일련의 중요한 사회적 시설 방문, 주지사가 방송을 통해 지시했던 촉탁 업무 이행 검토 등이 있었고 또한 새로이 활주로 건설이 시작된 오하 공항을 방문했다.

'사할린 모르베헤가스'회사 하청업체 사장과 만남을 가졌고 지난주 정유사 직원들과 가족들은 오하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주지사에게 직통 전화로 사정을 말하며 앞으로 원유 생산 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했다. 사실 '사할린모르베헤가스'(로스넬치의 자매회사)는 사할린 북부 석유와 가스산업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주의 가장 오래된 석유·가스 채취 회사는 오하 주민들에게는 핵심 고용주이자 사실상 오하에 산업도시를 형성한 회사다. 생산을 중단한 이유는 콤포스스크-나-아무레로 보내는 본선 송유관의 사고 발생에 있었다. 이 시설은 사할린에서 채취된 탄화수소를 하바롭스크의 원유 가공공장에서 가공하도록 공급하는 핵심 송유관이다. 생산 중단 기간은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주민들과 만남에서 주지사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사할린 모르베헤가스'회사와 '로스넬치' 회사 대표들과 회담 결과로 합의된 협약에 대해 상기시켰다. '로스넬치'는 1년 5개월간 송유관 86km를 건설하는 계획에 56억 루블리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는 '사할린모르베헤가스' 직원들의 상황에 대한 '로스넬치'의 굳건한 입장을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과 특별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송유관이 설치되는 1년반 동안 직원들의 업무는 다른 구역에서 하계될 예정이며 하청 계약업체 종사자들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일 없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어떤 신호나 불확실성이 생기긴다면 제때에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레리 리마렌코는 강조했다.

사회단체와 만남의 주요 내용은 석유 채취 중단과 이 문제들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했다

## 사할린, 연초부터 2,200여 곳 무단 쓰레기 매립지 제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482곳의 무단 쓰레기 매립지가 제거되었고 이어 무단 쓰레기 매립지가 많은 곳은 코르사코프가 238 곳, 아니와 지역 228 곳이였다. 5월과 6월 한 달 반 동안 제거한 무단 쓰레기량은 연간 처리되는 무단 쓰레기량의 1/4에 해당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올해 무단 쓰레기 제거에 착수한 가운데 무단 쓰레기 매립지를 찾기 위해 무인 항공기와 '사할린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했다. 포털 사이트에 관심을 가진 사할린 주민들이 무단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 각각에 대한 자료들은 사할린주 지리정보체계에 입력되어 표시된다. 이로써 전문가들이 쓰레기 제거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특대형 폐기물의 재활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고품 공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된다. 폐기물 대상 규정 위반 시에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벌금액은 개인은 5천 루블리, 법인 또는 개인 기업가는 30만 루블리에 달한다. 주식회사 <폐기물 대상 관리>는 사할린 지역 감독국이며 사할린주의 고품 공공폐기물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으로서 고품 폐기물 처리 시 이 조직과 개인, 법인, 개인 기업가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시 벌금형 상기

사할린 주에는 마스크 착용 지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사할린주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공 행사와 관람 장소, 상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침은 이미 몇 달째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사람들이 더욱 자주 이런 지침을 무시할 때 감염자가 발생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도 가끔은 방문객에게 이런 지침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는 방책이다. 이런 연유로 세계 보건기구는 이전에 권고를 넘어서 의무적 개인 방어장비 착용 쪽으로 개정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역 보건부 치료과 과장인 텐 밀라가 지적했다.

주 기관 대표들은 방역 지침에 대한 준수를 감독할 예정이다. 지역 시행기관에서는 감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위반 적발 시 행정 조서를 작성할 직원 명단을 구성했다. 격상된 지침 시행 시 위반의 경우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민 대상의 과태료는 1만-3만 루블리, 법인의 경우 10만-30만 루블리가 부과된다.

감독기관은 마스크 착용만 아니라 주지사의 지시로 내려진 별도- 카페에서 좌석 간 간격 유지,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 지침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새고려신문

##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특집

사할린에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최초 위문공연 30주년

# '눈물조차 얼어붙은 여기는 사할린'으로 심장 울려

이 사변에 대한 새고려신문사의 전 직원들의 회상록

##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고향과 두고온 부모, 형제, 처자식에 대한 쓰라린 가슴을 달래주었다

비록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할린 한인들은 아마도 20년 전, 1990년 7월 말에 있었던 감격스러운 사연으로 한국 인기가수들의 위문공연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 영주 귀국하여 살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그 인기가수들 - 주현미, 설운도, 현철, 송대관 기타 레전드들의 노래를 듣고 있지만, 그때마다 30년 전에 사할린의 무대에서 우리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특별히 위문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에 지금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녹음 테이프를 서로 빌리곤 했는데 직접 그들의 노래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꿈같았다. 기자로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취재하면서 이 공연이 사할린 한인사에 뜻깊은 페이지를 차지한 사연이라는 것을 느꼈다. 7월 2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 경기장은 섬의 각지에서 온 손님들, 심지어 하바롭스크에서 온 관람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공연도 4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 관람객들은 웃고 울며 또 울며 웃으며 감동 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연을 보고 기사로 올리기 위해 기사 제목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제목을 한국 인기가수단의 위문공연 '웃으면서 울면서'라고 달았다

한국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있는 그 며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 대해, 공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이 공연은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수십 년 세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 형제, 처자식을 뵈고 싶어하시던 쓰라린 가슴을 달래며 청춘 시절을 회상케 하는 무대로써 눈시울을 적시면서도 공연이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추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웃에 사는 러시아 지인들이 이틀 동안 시장이 텅 비어 감자도 토마토도 야채도 못 샀다고 웬일이냐며 의아해 하던 일이 생각난다.

이렇게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때, 한국 인기 가수들의 사할린 공연은 잊을 수 없는 사연이었고, 오직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감사합니다!>란 말밖에 할 수 없는 감동적인 상봉이었다.

한국 양산에서 김장녀



특집에 실린 모든 사진은 본사 이예식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본사편집부)

## 반가움과 슬픔이 공존

매주 신문을 발행하는 것만 해도 번거롭겠는데 사할린에서의 한국 인기가수들의 위문공연 30주년을 잊지 않고 특집을 편집한 새고려신문사(사장 배 위토리아)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30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한국인기가수들의 위문 공연은 사할린 한인 사회문화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명절이었다.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신문사 직원들이 총동원되었다.

아다시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길이 막혀 귀향하지 못한 조상들은 수십 년간 향수에 젖어 있었다. 지난 세기, 특히 40-60년대를 비롯해 구소련 정치 개방이 시작된 80년대 후반까지 한인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유행가를 만끽할 수 없었다. 당시 일부 한국 유행가는 금지되었었는데 특히 조용필 가수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였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한국 라디오 방송을 몰래 경청했는데 자주 방송인의 목소리, 가수들의 노래가 들릴 듯 말 듯해서 몹시 괴로워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30년 전 여름에 한국 MBC의 제안과 우리 신문사(성점모 사장)의 협력으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인기가수, 연예인, 기자 (나의 기억에는 약 40명)들이 사할린을 찾아와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사할린 한인 사회문화역사상 최초로 남녀노소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의 인기가수들의 대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그 후로는 이와 같은 규모의 콘서트는 없었다고 해야 하겠다.

신문에 게재된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광고를 보고 '한국 인기가수들이 사할린에서 공연한다.'라는 소문이 사람의 입에 오르면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서 동포들이 특별 전세기를 주문 탑승해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하러 사할린으로 날아왔다. 대단했었다. '

스파르타크'경기장은 만석이었다. 자리가 엄청 모자랐다. 그래서 지어 땅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불편하였으나 눈앞에서 열창하는 한국 인기가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동포들은 감동을 받았다. 가수들 노래의 감미로운 선율, 가수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기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미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슬퍼하게 했다. 주현미 가수도 <사할린>(작사 이호섭, 작곡 김영광)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눈물조차 얼어붙은 여기는 사할린,

피땀혀 부르는 이름,

이 자식 보기 전에 눈 못 감으실,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죽지 못해 살아온 목숨,

죽기 전에 한번만 가 봤으면, 내조국, 내 고향.

언제 봐도 낯설은 여기는 사할린

어김 없이 저무는 하루

고향 땅 밟기 전에 눈 못 감는다

다짐한 게 어언 50년

일장기에 내몰리며 아우성치며

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

살아 생전 한 번만 가봤으면 내 조국, 내 고향.'

.이 가사와 곡조는 동포들의 가슴에 진하게 울렸다. 주현미 가수가 부른 이 노래 소리는 오늘날 나의 귓전을 울린다. 그날 경기장에는 가수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반가움과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 대한 슬픔이 공존했다.

본사 문화부 기자들이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도맡아 취재했다. 나는 30년 전에 공업부 상급기자였기 때문에 가수들과의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도 사할린 한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녹음기나 라디오에서 들던 주현미, 김완선, 송대관, 설운도 등 인기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한 건 영광이고 행복이었다.

나는 오늘날 MBC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이다.

안춘대,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에서.

# 사할린에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최초 위문공연 30주년

## '눈물조차 얼어붙은 여기는 사할린'으로 심장 울려

### 이 사변에 대한 새고려신문사의 전 직원들의 회상록

특집

## 사할린 상공에 태극기가 처음 휘날렸던 날

나의 기억으로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서 1990년이 가장 뜻깊은 일이 많았던 해였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2월에 사상 처음 대한항공기로 사할린1세 노인들이 집단으로 일시 모국 방문을 떠났으며, 3월에는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한인협회가 결성되었고, 7월에는 한국의 인기가수들의 사할린 위문공연이 있었다.

그 공연에 대해 회상해 보려고 한다.

이틀에 걸친 공연은 정말 사할린 땅에서의 큰 명절이었다. 사회주의인 소련에서는 금지되어 듣지도,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 민족의 노래, 우리 모국의 노래를 언제나 숨어서 듣고 있었던 그 노래를 직접 인기가수들의 출연으로 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한국 엠비씨(MBC)방송사가 주최자였는데 담당자 김행신부장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사할린을 다녀갔다.

사할린에서는 전적으로 '새고려신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할린에서의 모든 준비는 신문사가 도맡아 추진했다. 사실 사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 당시 이곳 불안한 사회와 경제적 상황의 조건 아래 가수단, 취재단 등 약 50명의 숙박, 식사, 이동 문제의 해결도 쉬운 것이 아니었으나 무엇보다도 공연의 필요성, 그 목적에 대하여 주 당위원회, 국가안기부, 주 행정부를 설득시키고 동의를 얻는 것이 시급했다. 신문사가 공연의 행정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면서 허락되었다.

한국의 인기가수의 사할린 공연은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서기로 고르바초브의 통치가 있었고, 소련이 서울 88 올림픽에 참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한국 인기가수들의 사할린 방문에 대한 소식은 도시에서 도시로, 부락에서 부락으로, 나아가서는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퍼져나갔다. 1만5000 명 이상의 관객!

사할린에서 이렇게 많은 동포가 한 자리에 모여보는 사상 처음이었다. 주내 각 지방에서는 물론이고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관객들이 왔었다.

공연은 7월28일에 주 주양도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실로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 나는 곧 경기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때 호

텔에 계시던 김행신 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필이면 왜 그날에? 그것도 토요일에? 왜 전날에 말하지 않았는가?' 김 부장에게 대들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말이었다. 무엇보다도 토요일인 것이 문제였다. 당위원회, 안기부, 행정부 할 것 없이 휴일이라 다 닫혀 있었다.

그 당시 소련 땅에 한국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아직 한국과는 무역도, 문화교류도 없었으며 물론 국교도 수립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것뿐이 아니라 한국은 소련과 친선 국가인 북조선과도 적대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공연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만일 뒤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질 것을 나는 각오했다.

이날 사상 처음 사할린 상공 높이 태극기가 휘날렸다. 태극기를 본 노인들의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태극기는 우리의 금지,자랑, 기쁨이었다. 이럴 때마다 한인이라는 자존심을 더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누구의 책임으로 사할린 상공에 이들 동안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는지는 나하고 김행신 부장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

처음에 고운봉 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노래는 사할린 노인들의 마음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김지애 씨의 「쫄레꽃」, 문희옥,현철,김완선,최성수 가수들이 계속 무대에 올랐다. 송대관 씨의 「꿈에 본 내 고향」, 설운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불효자는 읊니다」는 청중을 감동시켰다. 특히 주현미 씨의 「사할린」을 들으면서 사할린 동포들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공연은 대성공으로 끝나고 인기가수들도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경사가 사할린 한인 역사에 남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로 하여 그 후 약 한 달 동안 나의 마음은 안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곳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소련이라는 무서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사는 우리가 다시 조국을 찾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성 점 모, <새고려 신문사> 명예사장,  
한국 안산 고향마을에서  
2012년 12월**



## 새고려신문사 배 옥토리아 사장으로부터:

30년 전에 리한 수교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MBC와 함께 우리 신문사(당시 <레닌의 길로>, 주필 성점모)가 대규모 행사 진행에 큰 책임을 지고 사할린 역사상 최초로 사할린 상공에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높이 휘날리게 하고 사할린 동포들에게 모국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역사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에 우리 신문사 선배들의 공로가 컸다.

신문사 사원 일부는 숙박식, 일정 작성, 진행을 담당, 일부는 가수

단과 제작진 인솔과 통역을 담당, 일부는 위문공연 등 취재, 일부는 관객 마중,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선물 나누기 등등 이런 대규모 행사 조직 경험이 전혀 없는 사원들이 일을 해냈다. 신문사가 행사와 진행을 주도했어도 그 당시 동포 한인사회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의 도움은 아주 컸다.

30년 전에 이미 신문사에서 타자공으로 근무한 나는 인기가수들의 위문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태극기와 선물(비누, 치약, 치솔 등)

나누느라고 몹시 바빴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한인이라는 자부심이 확연히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외할머니와 관련돼 있다. 충청도 출신이신 외할머니는 고향을 아주 많이 그리워 하셨다. 그 당시 우글레고르스크에 사시는 외할머니는 한국 인기가수들의 위문공연 소식에 작은 삼촌이 운전하시는 20여 석의 버스를 대절하여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연전날 저녁 늦게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오셨다. 밤이라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약 20명)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다. 3칸짜리 아파트집에는 부모님과 나와 동생 3명이 살고 있었다. 이날 따라 어머니는 잠시 출장으로 나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이사오지 못한 큰아버지 집을 지키느라 안 계셨다.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오셔서 우리 자매들은 많이 당황했었고 늦은 저녁식사, 잠자리를 준비하느라 우리 4자매는 바빴다. 다들 잠자리에 누워보니 빈자리가 없어서 나는 작은 복도에서 이불 없이 웅크리고 잤다. 이른 아침에 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이걸 보니 놀라시며 보기가 안스러웠다고 하셨다.

공연을 관람하신 외할머니는 아주 좋았다며 고향과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으셨다. 외할머니께서 그때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위문공연 취재는 김장녀 문화부장과 이예식 사진 기자가 맡았다. 이예식 기자는 그때 수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 게재되지 않은 사진 위주로 이번 특집을 준비해보았다.

새고려신문사는 이번 특집을 통해 독자의 추억에 남은 사람, 사변, 행사 등에 대한 글을 신문에 올렸으면 해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지요.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состоится осенью

С 16 по 25 октября в РК состоится 26-я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проведение которой было отложе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сайте, а также в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и на культурных площадках Сеула. В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издателей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до 5 августа проводится набор издательств для участия в выставк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В рамках ярмарки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онлайн-семинар, различные онлайн и оффлайн программы.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издателей Юн Чхоль Хо заявил, что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переживает изменения, готовясь к посткоронавирусной эпохе.

## Онлайн-концерт BTS попал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по количеству зрителей

Онлайн-концерт популяр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BTS «Bang Bang Con: The Live» вошёл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как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режиме потокового вещания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рителей. Запись об этом появилас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22 июля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Bang Bang Con» – это первое платное онлайн-представление BTS,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14 июня. Члены группы в течение 100 минут исполнили на сцене 12 музыкальных номеров, а фанаты со всего мира смотрел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порядка 756.000 подключений из более чем 100 стран, что эквивалентно 15 выступлениям на стадионе вместимостью от 50.000 человек. По заявлению агентства Big Hit Entertainment,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группу, это был «самый масштабный в мире платный онлайн-концерт». Группа BTS является обладателем нескольких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и первым корейским ансамблем, поднявшимся на первую строчку чарта США.

## В РК фильм «Полуостров»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Ён Сан Хо «Полуостров»,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в РК 15 июля, посмотрели уже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компания NEW, занимающаяся продвижением картины, представив данн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8 июля.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 млн 790 человек.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количества просмотров картина занял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разделив его с известным фильмом «Мировой рыно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олуостров» вызвал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также на Тайване, в Сингапуре, в Малайзии. Премьера во Вьетнаме прошла 24 июля.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едзаказов на местном рынке фильм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Сюжет «Полуострова» повествует о событиях спустя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ле зомби-эпидемии, описанной в фильме «Поезд в Пусан».

KBS World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Ханыль» означает небо

Сон Альберт –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корейские барабаны)

В июне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ежег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ая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ая музыка» завоевала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Ханыль», исполнив две композиции: одн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игра на барабанах дянгу(сидя), вторая – игра на больших барабанах (игра стоя, классические ритмы и микс разных композиций). Группа стала также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в «оригинальном жанре», где играла на барабанах бук под современную музыку, используя хореографию и шоу элементы. Почти 10 лет назад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группу взяли Инга Син и Альберт Сон. Группа стала известной на Сахалине, ее с радостью ждут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на – участник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олодежных, городских и обла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руппу часто приглашают выступит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бытиях.

Сегодн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младшему и концертному составу лежит полностью на Альберте.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узнала о том, как же была создана группа, чем живет и дышит сегодня.

– Во-первых, поздравляю с очередной победой на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е».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огда и как ты стал заниматься корейскими барабанами?

–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поздравление. Честно говоря, мы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одряд побеждаем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том, как я пришел к барабанам, то история такова.

Это был 2006-2007 год. Тогда мы учились в 9-ом классе, нам было лет шестнадцать. Кстати, Инга училась со мной на одной параллели. К нам в 9-ую школ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шли два преподавател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грантовая программа Комит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реди них был наш будущий учитель Мок Дин Хо. Они проводили набор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заняти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и рассказывали про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урсы фортепиано и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Мы с другом решили пойти на фортепиано. И когда пришли в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на урок, то нас встретил наш учитель Мок, провёл в зал и достал барабаны. Мы не говорили хорошо по-корейски, и не могли ему объяснить, что пришли не туда.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и началось наше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ими барабанами.

– Как была создана группа «Ханыль», и почему она называется именно так?

– Изначально наш учитель дал нам название 불꽃 (булькот), что означает огненные цветы, фейерверк. И уже потом, когда наш учитель через пару лет покинул Сахалин, и мы остались одни, переименовали группу в Ханыль. Ханыль – это небо. По корейским преданиям,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самульнори обращаются к небу, вызывая природные явления (тучу, ветер, дождь и молнию). Вот так это название закрепилось за нами.

– Как ты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м группы?

– Честно, мы между собой никогда не делили: кт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 кто нет. Просто все вместе занимались любимым делом. Было время, когда я на два-три года бросил барабаны. Был не самым примерным учеником. Вечно спорил и ругался с учителем. Обижался на него, не понимал его и т.д. В то время основными активистами были Инга, Ира Ким, Романова Настя, Тё Таня, Лавренова Настя, Ким Настя... Когда закончилась грант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бята остались без учител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лись сами. В один из дней меня позвали помочь с выступлением, согласился, и с этого все началось и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 Что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Ханыль»?

– Сегодня «Ханыль» – это молодые активисты, любящие барабан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стоянно раз-



Сон Альберт

1991 г.р., окончил СахГУ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сервис и туризм).

Работает торго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араллельно ведет свой бизнес(парфюм, косметика, бытовая химия). Все сво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отдает «Ханыль».

виваться. Мы представляем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мера, так и современны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лементов танца и шоу. Кстат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интеза, думаю, мы первые, кто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НГ.

Мы очень много репетируем, раза три и более в неделю. Если предстоят выступления, или когда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каникулы, можем собира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В день репетируем минимум два часа.

Мы участвовали и участвуем во мног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роектах. И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Дети Азии», концертные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конкурс «Мисс Уникальность», фестиваль «Заяви о себе», фестиваль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РК), конкурс видеоклипов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наши городские и молодеж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т.д.

–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вас беспокоят?

– Конечно ж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нструменты, инвентарь.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вопрос для нас. Барабаны очень быстро изнашиваются. Стоят очень дорого, да и доставка дорогая. Нам помогают различ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с помощью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риобрели большие барабаны модын бук. Готовим заказ на костюм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ш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га Син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она вместе с мужем буквально недавно приобрела очередной комплект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все же, мы копим на инвентарь и костюмы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с выступлений, с личной зарплаты...).

– Ваши мечты и планы?

– У нас в планах была поездка на остров Диндо (Корея), где находится Центр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Эту стажировку я выбивал целый год. Через знакомых, живущих в Корею, через знакомых, живущих в России и СНГ. И когда, наконец, вышли на Корею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тажировке, заполнили анкеты и должны были вы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чалась эпи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Это наша мечта – ежегодная стажировка в Корею. Нам необходима тренировочная база с носителями культуры. И, конечно,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все мои дети были одеты красиво. Чтобы у них были красивые новые костюмы, новые звучащие инструменты, чтобы он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ступали и радовали новыми номерами.

## На разработку лекарств против COVID-19 заложены миллиарды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Южная Корея направит 197 миллиардов вон (US\$162 миллиона) на поддержку разработки вакцины и лекарств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стные био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е фирмы, такие как Celltrion Inc. и Korea Green Cross Corp. ведут разработку лекарств на основе антител и плазмы кров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на людях начнутся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В частности, Celltrion работает с британским пар-

тнер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казали, что 39,1 миллиарда вон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средств производства лекарств, необходимых сейчас и при возможных будущих вспышках заболевания. 1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аправляю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на что они смогут закуп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масс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лекарств.

ИА РУСКО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утвердил Пак Чи Вона на пост гла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разведки провёл 28 июля слушания по кандидатуре нового директо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ажения оппозиционн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и будущего, в этой должности утверждён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Чи Вон.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лен комитета,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и в заседании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Они считают, что кандидатура Пак Чи Вона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к столь высокой должности. Они потребовали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подготовки к заключ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хеньяну.

## Hyundai Motor готовится приобрести завод GM в Ро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Hyundai Motor заявила 28 июля о начале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иобретению завода американской General Motors 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политики расшир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Hyundai Motor представила росси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документы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го шага к приобретению завода GM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После их рассмотрения российский антимонопольный орган примет решение о том, разрешить ли Hyundai Motor перейти к следующим шагам, - сказал он. Переговоры с GM и росси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 покупке завода стоимостью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идут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вод начал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в 2008 году, но в 2015 году он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у. С 2011 года Hyundai Motor эксплуатирует собственный завод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роизводит 230 тыс. автомобил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Hyundai Solaris compact, спортивный внедорожник Hyundai Creta и субкомпакт Kia Rio.

## Россия может быть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стран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В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включении России в список стран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Юн Тхэ Хо,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на российских судах, заходящих в порт Пусан, выявляются очаги инфекции. С начала июня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подтвержд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 78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 членов экипажей восьми судов в порту Пус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писок стран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входят Бангладеш, Па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Филиппины и Узбекистан.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из них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сертификаты,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ждают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теста на COVID-19. Сертификаты должны быть выданы не ранее чем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выбра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миссиями в странах особого риска. Их наличие не освобождает прибывших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который действует с первого апреля для всех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границы, включа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Китай возобновит выдачу долгосрочных виз гражданам РК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Китай возобновит выдачу долгосрочных виз гражданам РК. Как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журналистам посол Китая в РК Чан Хасун,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три вида виз: учебные, рабочие, а также визы иностранцам, имеющим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Китае. В марте кита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рыло въезд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цам из-за опасени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однако в апреле Сеул и Пек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ввести систему упрощённой процедуры взаимных поездо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н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тмену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для т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целях подготовки или заключения важных контрактов, а также по неотложным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Теперь около 7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возобновить учёбу и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Китае из-за COVID-19, смогут это сделать.

## 67%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РК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до 73 лет

67,4%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хотя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в среднем до 73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такой вывод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14 млн 27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до 79 лет.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2,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мере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 подсчётам статистиков,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превысит 10 млн человек в 2025 году, а к 2047 году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до 19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ит более 38%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а определяется как пожилое общество, когда более 14% её населения старше 65 лет.

(RKI)

## Побег бывш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в КНДР спровоцировал скандалы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общение властей КНДР о том, что к ним вернулся сбежавши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в Южную Корею гражданин, у которого есть призна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ызвало переполох в Сеуле. Проведе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повторный побег,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ло место. Беглец смог незамеченным пройти через вс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граничные системы охраны и контроля. Ранее знакомые перебежчика предупреждали полицию о его намерении вернуться в КНДР, но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отмахнулись от информации.

Напомним, что 26 июля власт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человек, у которого есть признаки COVID-19.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 этого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ляла, что в стране нет ни одного больн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ом. Дело взято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Ким Чен Ыном, который в связи с ситуацией созвал совещание ЦК партии. В связи с инцидентом, как заяв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страны чучхе, в Кэсоне, где находится больной, введены строжайшие меры по изоляции и карантину. Было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этот человек три года назад сбе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но 19 июля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В Южной Корее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сначала вызвало скептическую реакцию. Многие посчитали, что КНДР, словам которой об отсутствии в стране COVID-19 не верили, пытается найти оправдание вспышке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торую теперь сложно скрыть, сваливая все на Южную Корею. 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ычной выглядела и сама история, ч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убежал из КНДР, снова вернулся туда из развитой Южной Кореи. Хотя случаи подобных "повторных побегов-возвращений" уже были, но все равно скептиков хватало.

Как бы там ни было, но власти, эксперты и журналисты Южной Кореи по своим каналам бросились проверять информацию и вскор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ак минимум с побегом КНДР, скорее всего, не обманула. Это сразу же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цепь скандалов и неудобных вопросов в отношен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и полиции.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потенциальный "главный герой" этой детективной истор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уществует. Им является 24-летний Ким, который в 2017 году перебе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Он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роучился в одном из техникум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о не смог его закончить и устроился на работу.

Недавно его допрашивали в полиции. Одна из его знакомых обвинила его в изнасиловании, сказав, что он пригласил ее домой, напоил спиртным, а потом вступил в сексу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опреки ее воле. Сам Ким отрицал факт изнасилования, потому после допроса был отпущен, но его вскоре собирались арестовать.

Тут ж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телефон Кима не отвечает, а сам он куда-то пропал. Косвенны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возможного побега предоставила его другая знакомая, тоже бывшая перебежчица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По ее словам, он недавно в смс-сообщениях прозрачно намекал ей, что собирается вернуться в КНДР. Женщина решила заявить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но заявление у нее отказались принимать, сказав, что это "не их юрисдикция".

В итоге воен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стали проверять буквально каждый сантиметр территори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границе, на острове Канхва, что на западе страны, совсем рядом с границей с КНДР, нашли сумку с вещ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ли Киму.

Был сделан вывод, что К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бежал, пройдя через водоотводную трубу,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на берегу пограничной реки. Оттуда Ким, скорее всего, уже вплавь добрался д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о также выяснено, что в ночь на 18 июля Ким приехал на такси на остров Канхва и вышел там.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властей КНДР, он оказался у них 19 июля, что совпадает по времени. Отметим, что также вплавь примерно в этом же районе, используя ветки и ствол дерева, Ким в 2017 году прибе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Судя по всему, он запомнил этот способ.



Фото: EPA-EFE/JEON HEON-KYUN

Он к тому же ранее жил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Кэсоне, а потому хорошо знает приграничную полос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рсия о повторном побеге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твердилась, сейчас лишь уточняют технические детали.

Э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канд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первых, большие вопросы возникли к военны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к частям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которые охраняют границу на острове Канхва.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Ким обошел вс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истемы контроля и наблюдения, которыми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напичкана приграничная полоса, и спокойно уплыл незамеченным в КНДР.

Многие тут же вспомнили схож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имеющая статус "самой укрепленной и охраняемой в мире" межкорейская граница на деле оказывалась полной "дыр", через которые можно проникнуть. Так,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олдат дошел д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лок-поста, и о его приходе узнали, только когда он сам постучался в дверь сооружения, где сидели пограничники Юг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ыболовное судно вообще зашло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Сокчхо, причем один из рыбаков КНДР ходил по причалу и просил у прохожих одолжить телефон, чтобы позвонить знакомым. Теперь вот схожий по стилю случай с "пловцом" Кимом, который дважды - туда и обратно - пересек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оставш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

Вопросы возникли и к полиции, которая отмахнулась от заявительницы, намеревавшейся предупредить о побеге. В полицейском участк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рассказ женщины был сбивчивым и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онять, что разговор идет о побеге в КНДР. Та же категорическ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все четко разъяснила, а от нее просто отмахнулись, как от надоедливой мухи, не желая работать. Женщина говорит, что она разозлилась и на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а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которые стояли у входа в участок. Этим она хочет доказать,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ходила в участок.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ся эта ситуаци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подчас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оисходят такие случа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лечь в основу самого закрученного детективного романа. Впрочем, писателям, если бы они написали рассказ с подобным сюжетом, скорее всего, сказали бы, что это "чересчур фантастич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версии с заболеванием перебежчика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о власти Юга все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рицают.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ям Центра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й в РК, Ким не значился ни среди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ни среди тех, кто вступал в контакт с потенциально больными, а потому прибыл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корее всего, здоровым. Но здесь сложно будет проверить, к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ав: южане, говорящие, что Ким не был болен, или северяне,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у него признаки COVID-19, а потому они вынуждены ввести в целом городе режим строгого каранти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2200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убр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незаконных залежей мусора – 482 свалки – ликвидир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же в лидерах – Корсаковский (238 свалок) и Анивский районы (228 свало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только за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активной фазы работ - в мае и июне – объем убранног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го мусора составил около четверти годового объема отходов, поступающих на полигоны.

Масштабную ликвидацию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залежей мусора в этом году иници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обнаружить незаконные свалк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меняют беспилотную авиацию и сервис «Сахалин.онлайн». Так, на портал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размещают информацию 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ках. Данные о каждой заносятся в географи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оИС).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пециалистам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уборку отходов.

К примеру, 20 кубометров строительного и бытового мусора вывезли со свалк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по улице Фабричной, 3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ие в профилактике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их мест – особен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лесных массивов – принимают садоводческ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товарищества (СНТ). Организации заключают договор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 сделала половина из 250 садовых и огороднических товариществ.

Такая активность стала возможна благодаря условиям договоров – чуть более 90 рублей за однократный вывоз мусора с участка,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проживающих. Также вблизи товариществ установили контейнеры для сбора отход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деляют ути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абаритного мусора.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а полигоне ТКО. В случае, есл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везти мусор в день, когда не действует бесплатный прие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риобрести специальный талон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300 б, с 9.00 до 16.00. Утилизац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отходов объемом до одного кубометра обойдется в 300 рублей.

За нарушение порядка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Размер штрафа – до 5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граждан и до 300 тысяч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дин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меющей право вывозить твердые коммунальные отходы,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менно с ней физически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олжны заключить договоры. Заявки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gur\\_so\\_othody@svtc.ru](mailto:gur_so_othody@svtc.ru). Также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55-60-63, 8 (4242) 55-61-44.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евыполнила федеральный план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Интернетом медучреждений

Доступ во Всемирную сеть на островах получили уже все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а также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работа проведен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нтернет в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позволяет заносить сведения о здоровье посетителей в медицинс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Также фельдшер может записать пациентов к специалистам узкого профиля в други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Еще одно преимущество – теперь жители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или попасть на осмотр к врачу, не выезжая из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Благодаря телемедицин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одят консилиумы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был открыт в селе Колхозном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Уже через два дня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в учреждении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пациент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лемедицины. Раньше маломобильному пациенту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пришлось бы ехать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в Невельск, теперь лечение скорректировали на месте,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Невельской больницы Ксения Лапонова.

К концу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подключить к Интернету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оступ ко Всемирной сети получат 67 ФАПов.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двух министе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уникальные уролог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новорожденным

Для их выполнения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з Иркутска прибыл главный детский хирург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рофессор Юрий Козлов. Известный врач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уникальных методик провед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тив-

ных операций детям, в том числе новорожденным. Используя этот ведущий опыт, наканун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помощь оказали 6 сахалинским малышам.

По прибытии на остров детский хирург сразу направился в операционную. Здесь его уже ждали пациенты – новорожденные со сложными патологиями мочеполовой системы. Возраст самого юного – всего 20 дней.

– Провели ребенку сложную операцию на почках и мочеточнике, диаметр которого 2 миллиметра. Чтобы сшить такие структуры, надо обладать ювелирной точностью и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 командой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мы давно знакомы, контакт отличный, у малыша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а нарушенная функция, –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веденном хирургическ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е Юрий Козлов.

Все оп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ям проведены малоинвазивным способом, с помощью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ой подход малотравматичен,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Юрий Козлов практикует новый формат работы – в условиях палаты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прямо в кювете.

– Младенца с экстремально низкой массой тела, меньше одного килограмма, нельзя лишний раз тревожить, даже выносить в другое помещение.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делана первая такая операция – прямо в палате, туда достави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ребенка не тревожили перемещениями в операционную. Это требует колосс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высочайшего уровня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Лариса Фатеева.

Ассистировали профессору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Юрий Козлов отмечает,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пераций возможно лишь там, где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медики.

Толчок к развитию такой помощи учреждение получило с установкой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временного 128-срезового компьютерного томограф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Аппарат позволяет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сложнейшие патологии у дет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этом году оснащение больницы продолжат, ожидается поставка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го и лаборатор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Герценов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роекту создания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ограмме «Два диплома»

Ведущий российский вуз – партнер СахГ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А. И. Герцена, стал еще одним участником меморандума о создании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ее с инициативой, которая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получать дипломы ведущих вузов страны, не покида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ь в меморандуме поставил ректор РГПУ имени А. И. Герцена Сергей Богданов.

– Герценов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сегда очень хорошо чувствовал потребност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сей страны. Наши выпускники – учителя самых разных специализаций – работ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профессия учителя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Но важно, чтобы подготовка учителей был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специфику конкретного региона, должна учитывать клима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или, например, потребности отдаленных сельских школ. Проект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 – это новый форма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значит новые идеи и проекты. Нам это очень нравится,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огданов.

Абитуриенты, поступившие в этом году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в СахГУ на направление подготовк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фили: «Безопасность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и технология», «История и обществознание», «Нач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могут выбрать совместную с Герценов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рограмму, связанную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образовании. Для этого им необходимо до 19 августа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в программе делается на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школ, колледжей, техникумов и у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пускники смогу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внедрять и сопровожда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изучать модули, связанные с информатизацие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электронным обучением.

Как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современный педагог должен эффективно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в цифров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реде, уметь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еобходимые сведения и информацию,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 способы работы с ними.

–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будем ждать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ые завершат обучение по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и пополнят ряды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помним, чт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рктике и 14 ведущими вуза-

ми страны ранее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здании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Первым этапом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стала программа двух дипломов. У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в московских, петербургских, томских вузах, не выезжая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Ох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ют расселить 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фтегорск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 жителями одного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северную столицу Сахалина.

– У нас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решения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Аварийные здания будем сносить и строить на их месте новые дома. В них планируем заселять охинцев из других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зданий. Кто желает, может подыскать квартиру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её приобретет. Кроме тог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за свою квартиру. А одино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будем переселять в новые дом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мара Тимшина проживает в доме № 37/1 по улице Дзержинского уже много лет. Аварийным его признали в сентябре 2019-го. Семья готова рассмотреть все варианты переезда, но склоняется к смене города.

– Мы отдаем предпочтение переезду на юг Сахалина. Мой супруг сильно болен, нуждается в постоянн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Летать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озможности нет,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хи.

Большинство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вартир этого дома выбра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и денежное возмещение.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 Охе приобретут около двух десятков квартир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ыделено на выкуп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 собственников. Этот способ выбрали 90 охинцев.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ы выдел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как на выкуп жилья, так и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пенсионеров на юг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в Охе планируют расселить пять домов по улицам Советской, Карла Маркса и Дзержинского. На месте снесенных сформируют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д будущие новостройки. Всех, кто желает заселиться в них, приглашают в местн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для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Всего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более 1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вопрос должны за пять лет. В 2020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9 тысяч аварийных «квадратов», в 2021 – 21 тысячу, в 2022 – 36 тысяч, в 2023 – 43 тысячи, в 2024 – 54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В Корсакове у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Океан» создают зону отдыха

Территорию в центре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рядом с популярным у жителей объектом решен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о их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осьбам. Работы здесь развернулись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е убирают старое покрытие и меняют основание.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нутренний двор КДЦ «Океан». Там появятся асфальт и зеленые насаждения,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 отдельный вход для недавно открывшегося киноз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борудуют входы и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Эти работы подрядчик должен завершить в но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ходе второго этапа в 2021 году благоустроят обществ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ы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Здесь создадут зону отдыха с озеленением и скейт-парком. На сохранении последнего объекта настояли жител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 Сейчас в моде быть здоровым и спортивным, поэтому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стали популярны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и уличные тренажеры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Очень рад, что скейт-парк останется на своем месте,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Надеемся, что появятся и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ramпы,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Владимир Милай.

–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ы создаем комфорт для отдыха и досуга жителей с учетом их мнений и пожеланий.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по такому принципу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46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ела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людей. И, конечно, мы предлагаем им принимать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ить 25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скверов, набережных и площадей. Каких именно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шали сами жители во врем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в район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주러한국문화원, SNS 예술가 라이브인터뷰 진행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는 한-러 문화예술인' 시즌 1,2 진행 김기민 마린스키 극장 수석 무용수, 안톤 돌린 러시아 스타 영화평론가 등 출연

주러시아한국문화원(원장 위명재)은 지난 5월부터 문화원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문화예술인 초청 라이브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기 격리 상황 속에서 현지 한국문화 애호가들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초대손님들은 러시아 문화예술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러시아에서 개최되었던 공연, 강좌에 참여하여 러시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국인 문화예술인사들과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 라이브 방송 시즌1에는 ▲마린스키 극장 수석 무용가 김기민 발레리노 ▲현대무용가 김재덕 ▲소리꾼 정승준 ▲케이팝 안무가 배은경이 접속해 문화원 팔로워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당시 초대 손님들은 자가격리로 인해 변화된 일상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각자의 팀, 또는 본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특히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2016 브누아 드 라 당스' 시상식에서 최고 남자 무용수상을 받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기민은 샤키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한국 창작 발레 대한 생각, 본인만의 예술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7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 있는 라이브 방송 시즌2에서는 ▲작가 김하나 ▲러시아 AST 출판사 해외사업 팀장 이그나티예프 키릴 ▲영화평론가 돌린 안톤 ▲바이올리니스트 류희운이 출연했다.

'말하기를 말하다' 등의 저자이자 팟캐스트 '책읽아웃'을 진행 중인 김하나 작가는 한국어를 배우는 문화원 SNS 팔로워들에게 한국 현대작가들과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을 소개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관련 서적의 상당 부분을 출간하고 있는 AST 출판사의 해외사업 팀장 이그나티예프 키릴은 지금까지 출간된 한국 관련 서적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은 한국 서적을 소개해 주었다. 또 러시아 내 스타 영화평론가이자 영화 전문잡지 '이스쿠스트브 키노(영화 예술)' 수석 편집자이기도 한 안톤 돌린은 예전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와 감독들을 소개했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독립영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등 화려한 입담을 선보였다.

5월에 진행된 라이브 방송 시즌1은 약 10만회, 현재 진행 중인 시즌2는 약 6만6,000회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문화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SNS를 통한 라이브 방송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는 문화예술인' 시즌 3과 시즌 4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이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라이브 방송 녹화본과 관련 포스팅은 주러 한국문화원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culturerus)과 유튜브(www.youtube.com/kcultureru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KBS 한민족방송

## '2020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동포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0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분야]                                                                                                           | [시상내역] (총 20명 / 상금 총620만원)                                                                                                             |
|------------------------------------------------------------------------------------------------------------------|----------------------------------------------------------------------------------------------------------------------------------------|
|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과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한류 체험담에 관한 내용                                                           | <b>청소년부문</b><br>1) 대상(1명): 상금 50만원 및 상패<br>2) 우수상(2명):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br>3) 장려상(3명):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
| <b>[작품분량]</b><br>200자 원고지 20매 (A4 3~10장) 내외<br>영상 및 오디오콘텐츠 10분~30분 내외                                            | <b>성인부문</b><br>1) 대상(1명): 상금 70만원 및 상패<br>2) 우수상(7명):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br>3) 특별상(2명):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br>- 2020년 신설, 국내외 거주 사할린동포, 고려인 대상 |
| <b>[접수]</b><br>2020.05.04 (월) ~ 08.28 (금) 까지                                                                     | <b>단체상</b><br>조선족학교(대표 1명): 상금 70만원 및 상패                                                                                               |
| <b>[심사기준]</b><br>작품: 주제의식과 진솔한 우리말 표현                                                                            | <b>지도교원상</b><br>지도교원상(2명):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
| <b>[수상작발표]</b><br>2020.09.25 (금) '개별통지'                                                                          | <b>공로상</b><br>방송국 (대표 1명) 공로패                                                                                                          |
| <b>[시상일정 및 장소]</b><br>2020.11.23 (월), 서울시 여의도 KBS 공개홀                                                            |                                                                                                                                        |
| <b>[접수처]</b><br>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우) 07235<br>"2020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 Email: 972khz@kbs.co.kr |                                                                                                                                        |

## 이 모 저 모

<테니 구> 전통의례 티몹스코예 구역에서 열린다

8월1일 치르노브드 마을의 티미 강가에서 첫 연어의 유입을 기념하는 <테니구> 전통의례 행사가 열린다. 지역 중앙클럽조직 홈페이지에는 오후 2시에 개막 행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스포츠 애호가들은 오전 10시쯤 와서 축구와 배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전통의례 프로그램에는 대지의 정령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과 님프 '케흐'양상불의 공연, 허브차 시음회, 공예 장식품 전시회, 성인과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있다.

민속 경기 중에는 작살 던지기, 활쏘기, 높이뛰기, 투포환, 세 번 건너뛰기, 감은 밧줄 멀리 던지기, 줄다리기, 민속 씨름을 비롯해 전통적인 배 경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 9시부터 새벽3시까지 '친구 동아리' 축하 디스코텍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Обрядовый праздник "Тени Гу" пройдет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1 августа**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овый праздник "Тени Гу", посвященный первому ходу горбуши, пройдет 1 августа на берегу реки Тымь в селе Чир-Унвд.

На сайте районной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клубной системы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ег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чнется в 14 часов. Но спортивные болельщики могут прийти к 10 часам — на это время назначе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утболу и волейболу.

В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е обряд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земли, выступление нивхского ансамбля "Кех", дегустация фито-чаев,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хня", выстав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г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ходе нац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лучшие в метании гарпуна,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прыжках в высоту, метании тяжести, тройном пры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метании тынзына на хорей,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гонки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лодках.

Завершится праздник дискотекой "В кругу друзей". Она пройдет с 21:00 до 3:00.

**항공사에 일방적 절차로 계약 조건 변경할 권리 부여**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규는 탑승객과의 계약 실행 조건을 개정했다. 이 조항은 항공사가 일방적 절차상 항공사의 권리로 승객과 계약 조건의 변경, 계약 실행 거부, 승객이 지불한 금액의 환불 절차와 기한도 결정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위험 발생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러시아 연방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위험 격상 단계 조치 발령 시 적용된다고 러시아 연방 항공청이 전했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1일부터 중국과의 국제운송과 2020년 5월 18일 모든 국내 및 국제 운송에 따른 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항공기 결항 시 항공노선 출발일부터 3년 내로 항공료를 승객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이 항공사에게 있다. 이 항공료는 다른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승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환불 처리된다. 7월 23일 오로라 항공사가 8월 상반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삿포로와 서울행 항공편

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내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에 따른 통제 조치와 연관되어 모든 국경 폐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Авиакомпаниям дали право менять условия договора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несло изменения в условия исполнения договора воздушной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а. Документ регламентирует право авиакомпаний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изменить условия такого договора ил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его исполнения, а также определяет порядок и сроки возврата уплаченной пассажирами суммы.

Изменения применяются при угроз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ли режима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Ф или на ее части, сообщае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ложение применяется к договорам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еревозкам с Китаем с 1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и по всем внутренним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еревозкам с 18 мая 2020 года.

При отказе перевозчика авиакомпания обязана возместить пассажиру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с даты отправления рейса. Сумму можно потратить на оплату других услуг перевозчика. Возврат денег проводится по заявлению от пассажира.

23 июля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отменила перелет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аппоро и Сеул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августа. Это объяснили тем, что границы все еще остаются закрытыми в связи с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ми мерам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оссии.

(8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7면의 계속)

## 사기범들,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에게서 15억 루블리 갈취

팬데믹 시기 금융 사기범들이 지난해 유사시기보다 300번 더 많이 러시아인들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범들은 약 16만 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사람들로 부터 총합계 15억 이상의 금액을 갈취했다고 '웨스찌.ру' 통신사가 보도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화사기행각 조사 결과들을 아르쎈 식초브 러시아 은행 정보보안국 부국장이 발표했다.

전문 조사관은 사건 발생의 심각한 빈도를 자가격리와 연관지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시기에 금융기관에 상담하러 갈 수 없어 은행과 고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런 점을 전화 사기범들(보이스피싱)이 이용했다.

아르쎈 식초브에 따르면 전화 사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취당한 금액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은행 설계 직원, 검사,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했다.

6월에만 신원불명의 사기범들이 сахалин 신용자들에게서 550만 루블리를 갈취했는데 이 금액은 주 중심의 방 두 칸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мошенники похитили у людей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мошенники звонили россиянам в 300 раз чащ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провели около 160 тысяч операций, отобра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 людей свыше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Вести.ру».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с марта по май этого года озвучил зам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России Артем Сычев. Резкий скачок показателя эксперт связал с режимом самоизоля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в этот период не могли прийти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в офис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что усложняло коммуникацию между клиентом и банком. Этим успешно пользовались телефонные мошенники.

По словам Артема Сычева,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осшее число звонков, похищенная сумма осталась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ришки часто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банковских структур, прокуратуры и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Только в июне неизвестные заработали на доверчивых островитянах свыше 5,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Этих средств хватило бы на покупку двух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아리에 сахалин 주민들을 초대

сахалин주 일반과학 도서관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애호가 동아리에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다.

이 모임은 сахалин 일반과학도서관의 국제협력정보센터에서 <동쪽의 마법> 기획 일환으로 활동한다. 동아리의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아리 회원 자격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한국어 초급 수준으로 연령은 14세부터 65세까지의 сахалин 주민이면 가능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주소(:k.kon@libsakh.ru)로 보내면 된다.

전화 문의는 8(4242) 45-25-47로. 회원 수는 한정돼 있다고 сахалин 일반과학 도서관 측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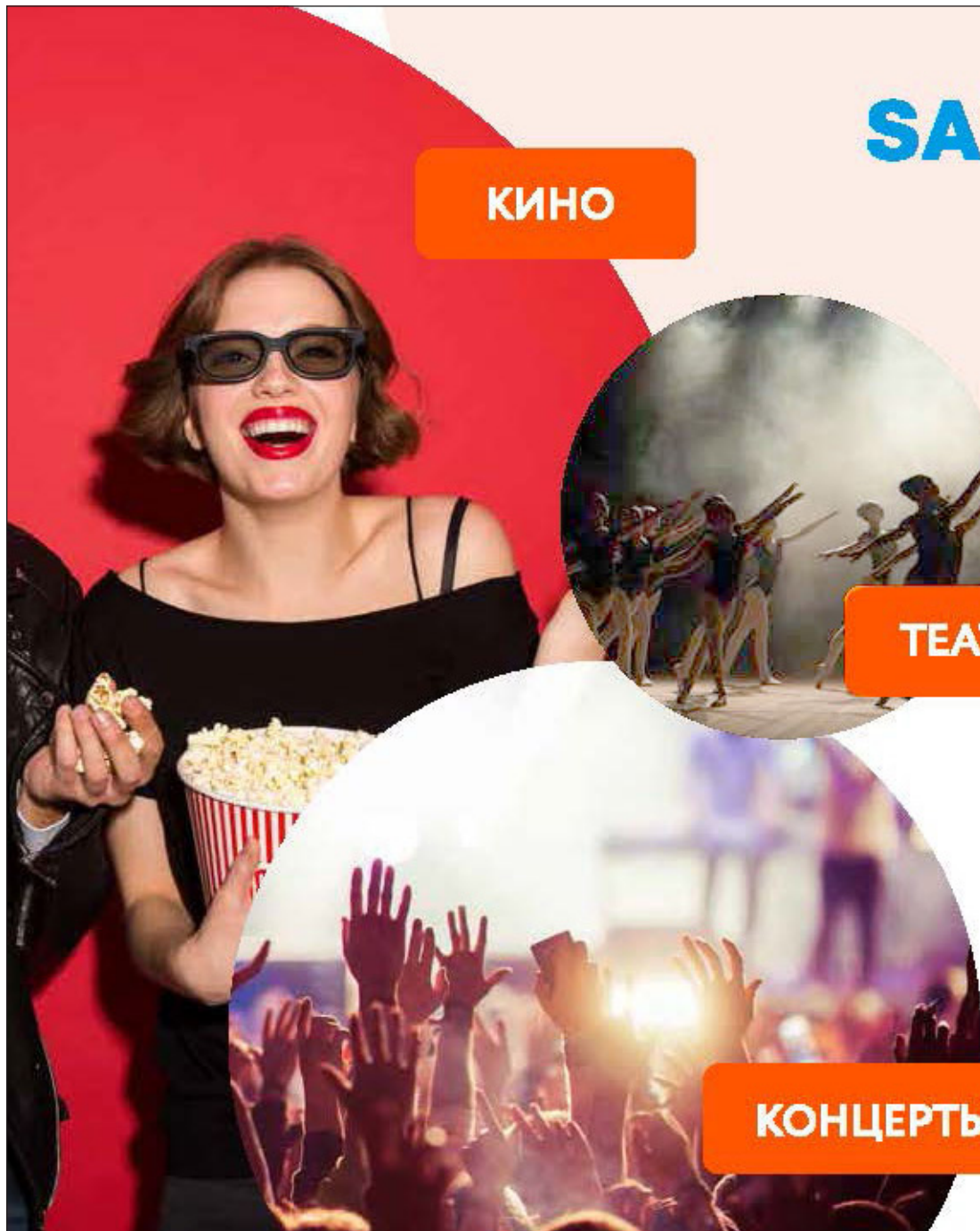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Он действуе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агия Востока» на баз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ОУНБ. Сотрудники клуба оказ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е проявляют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знакомятся с культур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клуба могут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4 до 65 лет с нулевым или с начальным уровнем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заявку и отправить ее по адресу k.kon@libsakh.ru.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4242) 45-25-47.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Реклама

|                                                                                                                                                                                           |                                                                                                                                              |                                                                                                                                                                                           |                                                                                                                                                                              |                                                                                                              |                                                                                                                                                                                                                                                   |
|-------------------------------------------------------------------------------------------------------------------------------------------------------------------------------------------|----------------------------------------------------------------------------------------------------------------------------------------------|-------------------------------------------------------------------------------------------------------------------------------------------------------------------------------------------|------------------------------------------------------------------------------------------------------------------------------------------------------------------------------|--------------------------------------------------------------------------------------------------------------|---------------------------------------------------------------------------------------------------------------------------------------------------------------------------------------------------------------------------------------------------|
|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br>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                                                                                                                                              |                                                                                                                                                                                           |                                                                                                                                                                              |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Издатель:<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br><br>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br>«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Правительство<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br>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br>43-72-94, 43-67-85<br>E-mail: skr@sakhalin.ru<br>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br>«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br>типография»,<br>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br>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br>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br>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ПР575<br>Тираж 1300 экз. |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br>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br>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br>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br>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br>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